

# 목포 '해양음악분수대' 설치 논란

목포시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동식 해양음악분수대 설치 사업을 치밀한 사전 검토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160억원을 들여 하당 평화광장 앞 바다위에 해양음악분수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분수대가 설치될 해상에 많은 배들이 입·출항하거나 정박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양음악분수대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도 논란거리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균형특별회

## 전남도 축소 권고 불구 市 사업 강행키로 해상사고 위험 등 사전 검토없이 추진 빈축

계에 반영돼 8년동안 10억씩 80억원 을 지원받고, 여기에 시비 8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업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음악분수대 설치와 불가하게 시는 지방채를 발행, 단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지난해 '무리한 사업인 만큼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며 일부

목포시 의원들도 반대편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해양음악분수대 건설시 환경훼손 우려가 높아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고 특정업체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창수 의원은 "특정 기술을 확보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계에서부터 설치까지 일방적으로 특정회사에 몰아주는 사업 발주는 각종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저하게 분리 공개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정 문화경제환경 위원장은 "현재 상태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들인 해양음악분수대가 흥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만큼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세밀한 운영계획안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 동계전지훈련장 각광

### 따뜻한 기온·교통·숙박 편리 대표 상비군 5개팀 등 구슬땀

목포시가 동계전지훈련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시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모인 81개 단체가 목포에서 동계전지훈련을 통해 기량을 연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특히 육상 단거리와 투척, 수영, 테니스, 카누 등 국가대표 상비군 5개팀을 비롯해 연인원 2만5000여명이 전지훈련에 나서 12억7천만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이처럼 목포시가 동계훈련 적지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따뜻한 기온과 편리한 교통여건, 쾌적한 숙박시설 등 운동선수들의 기량 연마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목포시는 앞으로 체육시설관련 인프라 확충, 전국 제일의 동계전지훈련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참가팀들의 훈련편의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이 참가한 팀에 대해서는 버스운행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光 州 日 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무 안 452-8535	나 주 332-5544 나주남부 334-6969
광 양 792-8111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보 성 853-9700	완 광 554-6677	장 성 392-7000
순 천 746-8111	영 광 351-0055	장성남부 383-8111
고 흥 833-9900	신 안 243-3758	473-2340
북 동 842-2121	진 도 543-0100	863-8822
구례 783-8111	강 진 433-8355	944-0444
곡 성 362-8111	함 평 324-8111	564-1919
		363-6155

## 목포세관 지난해 밀수 검거 급증

前年比 건수 120%↑, 금액 75%↓

수출·입도 각각 5%, 17% 늘어

지난해 목포지역의 수출·입 실적 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세관(세관장 김성중)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2억6천만불로 전년 대비 5%, 수입은 6억6천만불로 17%가 증가했다.

수출이 늘어난 것은 현대상호중공업이 벌크선 위주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컨테이너선박과 LPG운반선 등을 건조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LNG, LPG, 자동차운반선 등의 본격적인 건조가 이뤄지면서 올해 수출액

역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밀수 검거실적은 27건, 38억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는 120% 늘어났으나 금액은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 농수산물(실뱀장어) 밀수입 3억4천만원 ▲가짜 명품 시계 및 신발 등 상표법 위반 2억 원 ▲철레산 흥어 및 중국산 염장미역 등 수입가격 허위신고 22억원 등 이다

목포세관은 앞으로 원산지 허위 표 시나 가짜상표 부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목포=이상규기자 lsh@

## "즐거운 방학, 체험학습 오세요"

목포 자연사박물관, 12개 강좌·18개 교실 운영

목포 자연사박물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유치원과 초등학생, 일반 성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인 '열린 박물관, 열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겨울 숲의 곤충 찾아보기'를 비롯해 '상상의 식물 그리기', '하늘 별자리 관 만들기' 등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다양한 내용으로 편성돼 있다. 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야광구 이야기'를 통해 소중

한 우리의 옛 것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겨울방학 교육프로그램은 모두 12개 강좌, 18개 교실로 360여명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 18일까지 참여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 회원은 물론, 장애우 등 일반인의 참여 폭을 늘렸으며 조부와 손자·손녀 등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한지 만들기' 코너도 개설되어 있다.

/목포=이상규기자 sslee@



## 목포 국제축구센터 기공

목포 국제축구센터 기공

'호남 축구의 요람'이 될 목포 국제축구센터(FC) 건립 공사 기공식이 17일 목포시 대양동 노동동 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기관 단체장과 축구 관계자,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목포=이상규기자 sslee@

## 신안 임자면에 '튤립 꽃 단지'

郡, 사업비 2억 투입 7중 재배 나서

신안군 임자면에 대규모 튤립 꽃단지가 조성된다.

신안군은 대과재배 단지인 임자면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튤립꽃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군은 올해 1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3만여평의 면적에 7중의 튤립 재배에 나선다.

신안군은 박우량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김병윤 목포대 교수, 재배농가 등이 중심이 돼 튤립꽃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2008년 4월 임자면 튤립꽃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송공산에 '분재 예술 생태공원'

다도해 비경 살려 자연친화적 조성

신안군이 섬 공원과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 친화적 테마형 '분재 예술 생태 공원'을 만든다.

압해면 송공산 남쪽에 있는 균유지 2만 8천여㎡에 들어설 이 공원은 다도해의 비경과 어우러진 공간 활용은 물론 자연 친화적 시설로 꾸며진다.

특히 분재예술원을 포함해 생태 연못, 테마 로드, 자연 생태원 등 체험 학습장도 조성된다.

신안군은 생태공원과 현재 추진중인 도서 웰빙숲, 국내 최대 식충식물 군락지인 습지 관찰원, 다도해, 청정갯벌 등과 연계해 생태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신안 섬 야간 뱃길 열렸다

오늘부터...주민 불편 해소·신선 농산물 출하 등 도움

목포-압해간 야간 뱃길 시대가 18일 열린다.

신안군은 18일 오후 10시에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압해면 신장리 선착장에서 압해농협과 '야간 운항 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섬으로만 구성된 신안군지역은 그동안 일출 30분 전과 일몰 30분 후로 선박 운항이 제한되는 운항체계에 따

라 해가 지면 육지와 뱃길이 끊기 불편을 겪어왔다.

야간 뱃길이 열리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신선도가 생명인 농수산물 적기 출하와 투자 유치 촉진 등으로 주민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신안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12월 27일 '신안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

정했다.

특히 금년도 예산에 야간운항 손실 지원금 3억원을 확보했다. 또 선착장, 조망시설 등 안전운항을 위한 기반시설비 50억원을 배정해 압해도에 이어 임자, 증도, 도초면 등으로 야간 운항 항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 '돌연변이' 진행중인 청·동·오·리

백색을 띤 돌연변이인 알비노(라틴어·백색) 현상을 보이고 있는 청둥오리가 목포에서 발견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 전남지회는 목포시 용해동 갯바위 앞 해상에



서 겨울을 나고 있는 청둥오리 무

리 속에서 알비노 현상이 막 나타나고 있는 청둥오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갯바위 해상에 올들어 청둥오리를 비롯한 겨울철새인 붉은머리갈매기 2천여 마리가 월동하는 등 새로운 철새 서식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목포=이상규기자 sslee@

2007년 중국 명문대학 **중국어** 입학반 모집

2007년 9월 중국대학 1,2,3학년 입학 및 반입

2008년 5월 본고사 개시

2007년 9월 중외대 입학

중국대학 입학 설명회

리빙어니 中國語學院

문의전화: 010-233-9562

Cell Banking

셀뱅킹은 건강할때 자신의 세포를 보관하였다가

고령화될 주요 질병 발생시 치료에 사용하는 1대 맞춤치료의 시작입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문의전화: 02-377-3475